

(5) 헬레니즘 시대

1. 헬레니즘 시대의 일반적 특징

* 헬레니즘이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사망한 때(기원전 323)로부터 옥타비아누스(Octavianus)가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격파한 시기(기원전 31)에 이르는 300여 년간의 그리스, 로마 문명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흔히 이 시기는 알렉산드로스 이후 계속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사이의 정복 전쟁으로 고대 그리스 문화 전반이 쇠퇴하고 점차 붕괴되기 시작한 혼란기 또는 난세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헬레니즘의 시대에는 철저히 도시국가를 전제로 하여 그 안에서의 잘 사는 삶,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이상적인 조화로서의 도덕을 추구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설이 더 이상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됨은 어찌면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개인과 국가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이 깨어지고, 국가가 거듭되는 전쟁으로 혼란에 빠진 시대, 즉 개인이 국가나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헬레니즘의 시대에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평안을 얻으려는 여러 철학적인 시도가 등장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 특히 윤리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를 들 수 있다. 이들 두 학파는 각각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라는 정반대되는 이론을 자신들의 기본 입장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두 학파의 차이는 방법론상의 차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결론, 즉 이들이 제시한 올바른 삶의 방식까지 정반대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들은 모두 가능하면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개입하지 말고 세상사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둘 때에만 개인의 평안과 내적인 행복, 평정에 도달한다는 소극적이고 도피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것은 어찌면 난세를 살아가는, 세상의 혼란에 지친 사람들에게 내적인 위안을 제공하려는 철학의 공통적인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이 시대 철학의 일반적 특징을 특히 고대 그리스 철학의 황금기와 비교하면 다음의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이론 위주의 형이상학보다는 실천에 도움이 되는 처세술이 발전했으며 난세를 살아가는 태도로서의 윤리설이 중요시되었다. 둘째, 정치적 혼란과 전쟁이 계속되자 사회의 개혁이나 이상국가의 건설보다는 개인의 평안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경향이 등장했다. 셋째, 일관된 원리를 추구하는 합리성보다는 기존의 여러 이론을 절충하거나 이론 자체를 회의하는 경향이 등장했다.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 외에 헬레니즘 시대에 큰 영향을 미친 학파로서 어떤 확실한 것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이론이나 입장을 채택하고 그것에 의지하는 것 자체가 고통을 일으키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판단을 중지(epoche)해야 한다고 보는 회의주의 학파를 들 수 있다. 넷째, 현실의 불안과 비극이 계속되자 '이 세상'을 경시하거나 포기하고 '저 세상'에서 완전함과 평안을 찾으려 하는 종교적 경향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기독교의 등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이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개인의 행복과 평안을 구하려 하는 종교적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2. 에피쿠로스학파

* 에피쿠로스(Epicuros, 기원전 340-270)로 대표되는 이 학파는 기본적으로 쾌락주의(hedonism)를 채택했다. 쾌락주의는 인간의 경험을 근거로 형성된 대표적인 윤리 이론으로 대체로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 (1) 모든 인간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 - 경험적 사실
- (2)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이 곧 선, 회피하는 것은 곧 악이다.
- (3) 그러므로,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다.
- (4) 우리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회피해야만 한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해야만 한다 - 도덕적 당위

물론 이러한 전제로부터 그 다음 단계의 결론으로 넘어가는 추론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와 비판이 있지만 쾌락주의는 경험적 사실로부터 당위를 도출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평가받으며 다양하게 변형되어 오늘날까지도 큰 영향을 미친다.

* 그런데 여기서 쾌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쾌락, 누구의 쾌락을 기준으로 삼는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쾌락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역사적으로는 소크라테스 직후 등장한 키레네학파의 Aristippos가 최초의 본격적인 쾌락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모든 인간이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느끼고 추구하는 행위자 개인의 육체적 쾌락을 중시했으며 그런 쾌락의 획득이 최고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일정 단계의 쾌락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쾌락을 항상 추구하다 보면 쾌락의 노예가 됨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이른바 쾌락주의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 역설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 (1) 각 개인은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 (2) 그런데 육체적 쾌락의 과도한 추구는 고통을 수반한다.
- (3) 따라서 적극적인 쾌락의 추구보다는 소극적으로 고통을 회피해야 한다.
- (4) 육체적 고통은 인간의 삶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 즉 우리는 살아있는 한 고통을 느낀다.
- (5) 육체적 고통의 완전한 제거 또는 해방의 상태는 죽음이다.
- (6) 이러한 죽음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즉 우리는 자살해야 한다.

초기 쾌락주의자들은 결국 고통이 없는 순전한 쾌락의 추구가 현세에서는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어 결국 전혀 고통이 없는 상태, 즉 모든 고통의 제거 또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상태로서의 죽음을 찬양하고 자살을 권장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결론을 흔히 쾌락주의자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즉 적극적인 쾌락의 추구가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는 자살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일종의 역설로 보인다는 것이다. Aristippos는 실제로 자살했고 그의 제자인 Hegesias는 ‘자살의 설득자’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 그러나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육체적 쾌락이 아닌 ‘정신적 편안함이 지속되는 상태’로 파악하여 크고 작은 고통을 인내하면서 이성의 통찰을 바탕으로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순간적인 쾌락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위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는 삶을 비난하면서 오히려 육체적 욕구를 자제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킬 경우에만 진정한 쾌락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쾌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식욕이나 성욕 등의 본능만을 만족시키는 저급한 쾌락의 추구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히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감정적 관계를 맺는 것은 갈등, 분쟁, 질투 등에 빠지게 하고 그 결과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자제하면서 격리된 삶이 주는 안정과 평화를 즐겨야 한다는 것이다. 에피쿠로스학파에서 주장하는 대표적인 상위의 쾌락은 미적인 쾌락 그리고 특히 지적인 쾌락이다. 이 두 쾌락은 혼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상당히 지속적이고 쾌락의 결과가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다. 물론 이런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훈련과 계발, 자기 노력 등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닦으면 닦을수록 빛이 나는 보석과 같이 고급한 쾌락은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저급한 쾌락은 훈련이나 계발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바로 추구할 수 있는 손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결국 인간을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 덫 또는 수렁과도 같은 것이다.

* 이런 생각이 잘 드러나는 것으로 죽음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견해를 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죽음의 공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공포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며 삶과 죽음의 본성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에피쿠로스는 주장한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아니라고 믿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감각의 능력을 전제하는데 죽음은 바로 모든 감각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 것도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제한적인 시간을 부여함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불멸성에 대한 열망을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유한한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삶이 멈추고 나면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파악한 사람은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찾아올 때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예상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에피쿠로스는 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로서 요약한다. “따라서 가장 고통스러운 악이라는 죽음은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으며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면 삶의 유일한 악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바로 고통이다. 만일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어야만 한다. 감각 능력은 생명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죽은 후 시신은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죽음은 감각 능력이 끝나는 것이므로 죽은 후에는 아무 것도, 쾌락도 고통도 느낄 수 없다고 에피쿠로스는 주장한다. 만일 죽은 후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직 고통만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더욱이 죽음을 예상하는 것은 아무런 고통도 일으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 죽음을 두려워하여야 하는가?

* 하지만 어느 경우든 에피쿠로스학파는 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할 것을 권고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가능한 한 모든 세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은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본다. 이들에 따르면 쾌락은 성취를 분자로, 욕구를 분모로 하는 분수로 표현되는데 분자를 늘이는 것이 아니라 분모를 줄여나감으로써 더욱 큰 정도의 쾌락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즉 적극적으로 쾌락의 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욕구를 감소시킴으로써 더 큰 쾌락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상태는 평정심(ataraxia)의 상태이며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일상생활과 복잡한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은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생활을 통해서만이 영혼의 내면적 평안함과 정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그의 생각은 현실 도피적이고 소극적인 헬레니즘 시대의 특징을 잘 반영한다.

3. 스토아학파

* 스토아학파의 대표자는 제논(Zenon, 기원전 336-264)인데 그는 기본적으로 금욕주의를 채택했다. 그는 우선 이 세상을 관통하는 이법(logos)의 존재를 전제하는데 이 이법은 자연법칙, 사건의 발생, 세계의 전개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세계의 궁극법칙이라 할 수 있다. 이법은 각 개인과 관련해서는 불변적인 운명과 같이 전개된다. 그렇다면 인간도 이 이법을 수용하여 자신의 운명에 순응해야만 참되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운명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듯이 보이는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 감정은 결국 정념과 걱정으로 극단화되어 결국 인간은 이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돌발적이고 격정적인 감정을 피해야 한다. 감정으로부터 비롯되는 욕구는 자연의 음모라고 할 수 있다. 이 음모에 빠진 사

람들은 건강, 부유함, 명예, 행복 등을 선으로, 질병과 가난, 전쟁 등을 악으로 생각하여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부질없는 노력을 하게 되고 이런 노력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므로 더욱 큰 고통에 빠진다. 하지만 위에서 든 요소 모두는 이법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닌 단지 이법의 전개일 뿐이다(adiaphora, 선악무기설). 그렇다면 선악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선악도 그것을 추구하거나 회피하는 인간의 감정이 만들어 내는 것으로 여겨야만 한다.

* 스토아학파는 잘못된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금욕적 생활로서 부동심(apatheia)의 상태에 도달하여야 하며 이것이 참된 이법에 따르는 생활이라고 주장한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의지의 강건함이라 할 수 있는 부동심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어떤 신분의 사람이건 아니면 자신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건 그런 것은 내적 평안을 누리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적어도 이법 앞에 놓여 있는 인간은 감정으로부터 생겨난 욕구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며 이러한 욕구를 극복할 때 개인적인 내적 평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여기서의 어떤 사회적 계급이나 신분의 차이는 아무 소용도, 의미도 없다. 이러한 사실은 스토아학파의 입장을 대표하는 저술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 두 사람 중 한 사람, 즉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121-180)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반면 다른 한 사람인 에픽테토스(Epictetos, 50-135)는 노예였다는 사실로부터도 잘 드러난다.

* 스토아학파는 처음에는 개인적 금욕주의로 출발했으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며 나아가 세계를 관통하는 이법을 강조하고 이런 이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로마제국의 형성과정에서 사상적 기초로 작용했다. 이 점은 로마제국 초기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키케로나 세네카 등이 모두 스토아 학파적인 경향을 보이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실정법보다 이법으로서의 자연법이 우위에 있다는 생각은 로마법의 자연법사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사람들 사이에 인간의 숙명주의를 유행시켰다.

*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한 위의 두 학파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라는 상반되는 방법을 채택했지만 그 결론은 소극적인 은둔과 현실로부터의 도피에 이르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를 개인과 전체라는 관점에서 비교해보면 에피쿠로스학파는 전체를 부정하고 철저히 개인의 정신적인 쾌락에만 몰두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스토아학파는 개인을 눈앞의 현실보다 더욱 큰 전체에 몰입시킴으로써 개인을 망각하고 전체에 순응할 것을 주장한다. 이 두 학파의 윤리적 사고는 계속해서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혼란한 시기에는 더욱 크게 유행했다. 이는 혼란기에 철학으로부터 일종의 정신적 위안을 얻으려는 대중들의 심리를 잘 반영한다.